

이준영씨의 본관은 덕수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장군 충무공의 형인 이요신의 12대손이다. 1879년(고종 16년) 1월 9일 도고면 일곡리(지금의 신유리)에서 아버지 이민학씨와 어머니 김해김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준영이 14세가 되었을 때에 천안군 목천면 컷골 박영성씨의 18세난 따님과 혼인했다. 박영성씨는 훈련원 판관 벼슬을 지낸 분으로 그의 덕망과 인품은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을 정도였다. 준영은 서당에서 한문공부를 하다가 18세에 상경하여 전보학교에 입학하였다.

21세에 육군 무관학교에 입학하여 2년 과정을 마치고 23세에 견습참위로 임관되어 왕궁을 수비하는 친위대와 시위대에서 1년간 근무한 다음 24세에 무관학교를 졸업하였다. 25세에 정규참위로 임관되어 강화도에서 근무하다가 28세 되던 1907년 4월에 친위대 제2연대 1대대로 전속되어 서울에서 왕궁을 경비하는 임무를 담당했다.

이즈음, 1907년 7월에 이준열사의 헤이그 밀사 사건이 일어나자, 고종황제는 퇴위당하고 순종황제가 즉위하였다. 친위 1연대 1대대장 박승환 참령은 을미년에 국모가 시해된 이후로 항상 원수 값을 뜻을 품고 있었다. 그런데 드디어 일본은 더욱 침략을 노골적으로 들어내어 가고 거래의 멸망이 박두하니, 박승환 참령은 강개하여 눈물을 지우면서 오직 한번 죽어서 나라에 보답하는 길이 있을 뿐이라 생각하였다. 이등이 황제를 폐위시킨 날. 궁중에서 거사하려 하였으나, 화가 황제에게 미칠까봐 두려워하여 중지 하였다.

1907년 8월 1일에 장곡천이 각 대장을 소집하였는데 박승환 참령은 아프다는 핑계로 가지 않았더니, 때마침 군대 해산한다는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미친 듯이 큰 소리로 슬피 울부짖더니 드디어 권총을 빼어 자살하였다. 이러자 본대의 장졸들이 일시에 격분하여 즉시 탄약을 고치고 부수고 탄환을 꺼내어 한 번 싸움을 결행하고 죽고자 하였다.

이준영 참위는 박승환 참령의 애국 정신에 크게 느낀 바가 있어 자신의 한 목숨 나라에 바쳐 남아다운 생애를 다하고자 결심을 굳히었다. 이리하여 박승환 참령이 한국군 해산에 항거하여 자살하자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친위 1연대 1대대와 2연대 1대대의 장병들이 무장 철기하여 항일투쟁을 벌이게 되었다.

이로써 소대장 이준영 참위는 일본군에 항의하여 경성지역을 무대로 일본군과 맞서 싸우는데 선봉적인 역할을 하여 많은 일본군 병사를 사살하였다. 이에 일본군 사령관이 급히 군대 수천 명을 집결하여 풍우처럼 달려와 포위 공격하니 이준영 참위를 중심으로 한 우리 군대를 영내에서 창문 틈으로 발사하여 부대장과 그의 졸병 백여명을 사살하였다. 일인들은 다시 남대문의 성벽에 자리잡고 기관포를 발사하면서 천둥, 벼락같은 소리로 공격하여 왔다. 이 준영참위는 동료장교 남 상덕, 이 충순 동지와 함께 소대, 장병을 지휘하면서 남대문 성벽에 자리 잡은 일본군과 접전하여 악전 고투하였다. 그리고 상인, 노동자 및 아낙네들까지도 나와서 성세를 도왔다. 소위 태전이 폭약을 가져라 영내에 던지니 우리의 군대가 드디어 영문을 탈출하여 일병에게 돌격 접전하였다. 피아가 살상이 대단하였으나 마침내 탄환이 떨어져 겹겹으로 포위된 상황에서 최후의 결전을 하다가 적탄에 명중되어 관문에서 28세의 젊은 나이를 일기로 장렬한 전사를 하였다.

이 전투에서 일본군은 대위 가지와라 특무조장 후지다 등의 중상을 입었고 많은 군졸들이 살상되었다. 한국군측은 장교 13명과 준사관, 하사, 군병 57명이 전사하고 10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일본군에게 쫓긴 나머지 한국군은 산 속으로 피하여 의병에 가담하여 끝까지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이 준영참위는 훌륭한 애국자로 오늘날 살아가는 젊은이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한다. 자신의 목숨을 나라에 바친 그 훌륭함을 우리 모두 본받아야 할 것이다.